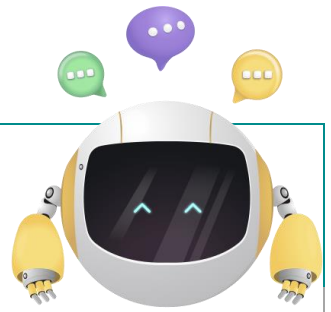


Tech&Stock Weekly

2026.05.08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데이터독, IT 모니터링 수요 급증 속에서 성장 가속화

데이터독(DDOG.US): IT 모니터링 수요 급증 속에서 성장 가속화

- 1분기 주요 실적 지표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시현 & 보수적인 가이드نس 산정에도 2분기 매출 가이드نس가 컨센스를 여유 있게 상회
- AI 도입은 IT 모니터링과 보안 수요 상승 환경. AI 모델사나 클라우드 사업자의 모니터링 자체 구축 등으로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도 상존할 것으로 보이나 데이터독이 가진 통합 플랫폼의 강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
- 1)AI고객향 매출과 Non-AI 매출 모두 성장 모멘텀 강세 확인. Non-AI 매출은 20%대 중반 성장으로 전분기 23%에서 가속화. 전체 매출이 10억 달러를 상회, YoY 32% 성장하며 전분기 29%에서 가속
- 2)AI 코드 생성 툴 확산으로 애플리케이션 수와 운영 복잡성이 높아지면서 모니터링 수요 급증, 데이터독 플랫폼 전 계층에서 사용량 증가 가속화로 이어짐
- 3)AI 에이전트 도입 가속화가 사용자수 기반 매출 인식하는 일반 소프트웨어 기업에게는 과금체제 관련 혼동을 줄 수 있으나 사용량 기반 과금 모델인 데이터독 입장에서는 사용주체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량 증가에 따른 수혜 전망
- 4) AI 훈련 워크로드가 기존 소수 기업에서 다수 기업으로 확산되는 흐름은 새로운 시장 기회

클라우드플레이어(NET.US): 2분기 가이드نس 아쉬우나 AI 에이전트 트래픽 수혜 확인

-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으나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 -18% 하락. 1)2분기 매출 가이드نس 시장 예상치 소폭 하회, 2) 예상 밖의 대규모 인력 감축 발표 관련 우려, 3) GPM 전년동기대비 -470bp 하락, 4)최근 저점 대비 50% 넘는 급등에 따른 기술적 과열 해소 등이 요인으로 작용.
- 경영진의 입장은 구조조정이 비용절감이 아닌 역할 재편의 문제이며 AI 도입으로 지원 인력의 역할 축소 때문, 2027년에 역할 변화를 반영하여 더 많은 인력 고용 예정.
- GPM 하락은 무료 트래픽의 유료 전환 가속화 때문. NET은 무료 사용자의 트래픽 네트워크 비용을 마케팅 비용으로 분류. 1분기에 무료 사용자들이 유료 개발자 플랫폼으로 전환되면서 GPM에 영향을 미쳤으나 P&L 전체로 보면 실질적으로 영향은 중립. GPM 보다 OPM이 더 적합한 경쟁력 지표이며, Rule of 40가 현재 46% 정도인데 2027년에는 50% 이상 달성 가시성 확보
- AI 모델사의 매니지드 에이전트 기능이 NET의 개발자 플랫폼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시장에서 우려 제기. 이에 대해 경영진은 AI 랩들이 NET의 인프라를 자사의 워크로드 실행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 강조. 경량, 고속에 강점이 있는 NET 개발자 프로그램 출시 후 대형 AI 스튜디오에서 높은 채택률 보임
- 1분기 실적은 에이전트 AI도입 가속화의 대표 수혜자라는 점을 확인. AI 에이전트 수혜가 개발자 플랫폼 가입자 수 증가로 드러나고 있음. 1분기에만 '워크스 플랫폼' 개발자 수가 100만 명 증가하며 작년 전체 증가 수인 150만 명에 육박.
-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에이전트 AI SW 플랫폼 대장주로서 지속적인 관심 필요

에이전트AI 트래픽 수혜

- 에이전트AI가 네트워크/보안, 개발자 플랫폼 양쪽에서 동시에 수혜가 되고 있음. 월간 수천억 건의 에이전트 요청이 클라우드플레이어 네트워크를 통과하고 있으며, 회사는 2027년 중 비인간(non-human) 트래픽이 인간 트래픽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 워크스 개발자 플랫폼 등록 개발자 수가 1분기 한 분기에만 100만명 증가해 분기 말 550만명 도달. 2025년 연간 신규 추가 개발자 수가 150만명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분기 한 번 만에 연간의 2/3를 채운 것. 워크스 매출 성장의 3/4 이상이 신규 고객에서 발생

팔란티어(PLTR.US): 미국 정부향 수요 급증 & 커머셜 모멘텀 여전히 강세

- 1분기 주요 지표와 2분기 가이드언스가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시현
- 미국 정부향 매출이 6.9억 달러로 84% yoy 성장하며 전분기 66%에서 급등했으나 미국 커머셜 매출액이 6.0억 달러로 133% 증가, 시장 기대(전분기와 같이 137%)를 소폭 하회한 점이 실적 발표 후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1분기 특정 커머셜 고객이 정부향 프로그램으로 전환된 영향이 있으며, 이를 제외할 경우 미국 커머셜 매출 성장 143%. 미국 커머셜 수요 증가 둔화가 아니며 현재 상황은 공급 부족으로 국방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커머셜 자원을 일부 국방쪽으로 지원 증가
- 전체 매출 성장 85%로 전분기 70%에서 가속화하며 역대 최고 성장 기록, 조정 OPM 처음으로 60% 상회. 2분기 가이드언스 매출액 18.0억 달러(+79%)로 컨센 7% 상회, 영업이익 10.6억 달러로 컨센 9% 상회
- 2026년 연간 가이드언스는 매출액을 6.5% 올려 76.5억 달러로 상향. 기존 61% 성장 전망에서 71%로 조정. 미국 커머셜 매출은 '120% 이상 성장'으로 상향(기존 115%). 전체 매출 상향 조정 폭 대비 미국 커머셜 매출 상향 폭이 낮은 것은 정부향 수요 급증에 우선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통상적으로 보수적으로 제시하고 매분기 상향조정하는 전략 고려
- 엄청난 숫자에도 실적 발표 후 주가 반응은 1)향후 AI 모델사와의 경쟁 속에서 커머셜 수요 변화 가능성, 2)높은 밸류에이션 등이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
- 그러나 1) 미국 커머셜 모멘텀 여전히 강세, 2) 미국 정부향 수요 급증은 미국 국방 예산 속에서 팔란티어 비중 상승을 시사, 3)AI 모델이 팔란티어 대체라기 보다는 AI 모델 적용으로 팔란티어 플랫폼의 차별화된 경쟁력(메타 데이터 그래프 & 의사결정)을 높이고 있음에 주목
- 현 주가는 FY27 매출 컨센서스 기준 PSR 33배(FY2) 수준으로, 단기적으로 투자심리 약세 지속될 수 있으나, 미국 정부 및 기업향 AI 시장 내 팔란티어의 독보적인 경쟁 지위, 강력한 성장 & 수익성 상승세를 감안하면 최근 2년 평균 멀티플인 PSR 45배까지의 반등 여지 유효하다고 판단됨

AMD(AMD.US): 폭발적인 서버 CPU 성장 확인

- 인텔과 마찬가지로 AI로 인한 강한 CPU 수요를 확인. 2030년 CPU TAM을 기존 6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까지 상향함. 특히 Agentic AI에 따라 CPU가 GPU보다 많아질 수 있다고 코멘트하며 추가적 TAM 상향의 여지도 남겨둠. GPU도 이번 분기는 중국 매출이 빠지면서 QoQ로 소폭 감소했으나, 다음 분기부터는 다시 성장을 예상. 데이터센터향 CPU, GPU 모두 성장이 가속화 되는 국면을 확인하며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

서버 CPU 수혜 확대

- 기존 Analyst Day에서는 향후 3~5년 서버 CPU 시장이 연평균 약 18% 성장한다고 봤으나, 이번에는 Agentic AI로 인해 연평균 35% 이상 성장, 2030년 1,200억 달러 이상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을 상향
- 시장 전망 상향의 주요 이유는 AI 채택 확산 시 추론이 늘고, 추론이 늘면 에이전트가 늘고, 에이전트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orchestration, data processing, data movement, parallel execution이 필요. 해당 업무들은 GPU가 아닌 CPU가 담당하는 영역. 그에따라 CPU:GPU 비율도 바뀌고 있음. 과거에는 CPU가 주로 host node 역할이라 1:4 또는 1:8 구조가 많았다면, 앞으로는 1:1에 가까워질 수 있고, 에이전트가 많아지면 CPU가 GPU보다 더 많아지는 구조도 가능
- 서버 CPU 매출은 4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YoY +50% 이상 성장. 2분기 서버 CPU 매출은 YoY +70% 이상 성장한다고 가이드언스 제시. 서버 CPU 성장은 하반기와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성장은 ASP보다 Q 상승에 의한 것. 공급망이 타이트해 일부 가격 인상은 있지만, 성장의 핵심은 더 많은 CPU를 훨씬 많이 출하하는 것에서 기인함
- AI 인프라에서는 단일 CPU가 아니라 일반 서버용, head node용, Agentic AI orchestration용 CPU가 다르게 필요. 즉, ARM 진영 뿐 아니라 x86 진영의 동반 수요 확대를 기대

샌디스크(SNDK.US): 장기 공급 계약 5개

- 5개 고객에게 RPO 420억 달러를 인식. Bit 기준 장기 공급 계약 물량이 FY27 물량의 1/3 이상을 커버하고 추가 계약으로 절반 이상 커버 될 것으로 예상. 기존 메모리 사업은 실적 피크에 FWD P/E 5배 내외를 받아왔음. 하지만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가격 하방이 막힌다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기대해볼 수 있음. 현재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12M FWD P/E 9배 수준이나, 시장 NAND ASP 상승 분을 감안할 시 실제 멀티플은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

장기 공급 계약 체결

- 고객과 5개의 다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3분기 중 3개, 4분기 들어 추가 2개를 체결했으며, 여러 고객과 추가 협상 중

- 3개 계약 기준 최소 계약 매출, 즉 RPO가 약 420억 달러. 해당 계약에는 4분기 들어 추가한 2개 계약은 포함되지 않음
- 5개 계약에는 110억 달러 이상의 금융보증이 포함됨. 이 보증에는 선금금과 제3자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금융상품이 포함되어 있고, 고객이 계약상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샌디스크가 보상을 받는 구조. 3분기 선금금 4억 달러 수취 완료
- 계약 기간은 고객별로 다르며 최장 5년. 가격 구조는 fixed와 variable이 섞여 있음. 단기 구간은 fixed 성격이 강하고, 장기 구간으로 갈수록 variable 요소가 커짐
- 5개 장기 공급 계약은 FY27 bit 기준 1/3 이상을 이미 커버. 회사는 추가 계약 체결 시 이 비중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50% 이상도 가능하다고 언급

루멘텀(LITE.US): 스케일 어크로스 시장 추가

- 3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 스케일 어크로스 시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 아이템이 추가 되었고, 원래는 전사 마진에 역풍이었던 트랜시버가 강한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이 가속화 되고 있으나 해당 아이템들은 동사 투자에 있어서 핵심적 포인트가 되기는 어려움
- 동사의 회계 기준 시가 총액은 이미 1000억 달러(회석 주식 수 1.02억 주 기준)를 넘어선 수준이고, 회석 시총 기준 FY27(27년 6월 결산) FWD P/E는 66배 수준. 동사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이유는 26년 하반기부터 열릴 CPO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 하지만 이번 분기 실적발표에서 CPO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 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스케일 어크로스 병목 확대

- 스케일 어크로스는 여러 데이터센터 건물을 광 네트워크로 묶어 하나의 큰 컴퓨팅 덩어리처럼 쓰는 구조. 전력과 공간 한계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개별 데이터센터 건물 안에서만 스케일 아웃 하는 데 한계가 생기고, 서로 떨어진 건물/캠퍼스를 광으로 연결해야 하는 수요가 커지는 중
- 루멘텀은 스케일 어크로스 시장에 pump laser, narrow linewidth laser assembly, WSS를 핵심 제품으로 공급 중. Pump laser는 장거리 광신호가 약해지지 않게 중간에서 빛을 증폭해주는 역할이고, narrow linewidth laser는 1.6T급 고속 전송에 필요한 매우 정밀한 빛을 만들어주는 부품. WSS는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지 않고 빛의 경로를 바꿔주는 광학 교통정리 장치. Narrow linewidth laser assembly 출하는 9개 분기 연속 증가했고 YoY 120% 이상 성장. Pump laser 출하도 YoY 80% 증가
- 현재 스케일 어크로스 제품이 기존에 주목 받았던 EML보다 수급이 더 타이트할 수 있음. 특히 pump laser와 narrow linewidth laser는 제약이 심하고, pump laser 쪽 공급부족은 회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갑자기 커진 것으로 보임
- 스케일 어크로스형 제품 병목 심화에 따라 해당 제품들이 마진 개선에 주요하게 기여했음

퍼스트솔라(FSLR.US): 정책 대기 물량 해소가 기대되는 하반기

1Q26 Re: 컨센 상회

- 매출액 10.4억 달러(YoY +23.6%)로 판매량이 31% 증가하며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으나 인도 내수 비중이 증가하며 일부 상쇄
- AMPC 공제 혜택 대상 물량이 증가하고 물류비가 전년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며 GPM 47%(+6pp)
- 1분기 수주 1.9GW 중 1.4GW가 미국 유틸리티향으로 체결되었고 ASP는 와트당 0.35달러
- USITC는 3월 25일 동사가 제기한 TOPCon 모듈 특허 침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으며 11개월 내 예비판정, 15개월 내 최종판정

활발한 태양광 프로젝트 M&A

- 2분기 마진은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이며 판매량이 증가하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최근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퍼스트솔라는 약 700MW의 옵션 물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
- FSLR의 대형 고객들 역시 관세 판결 전까지는 와트당 0.33달러 이상으로는 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는 상황
- 주가 역시 정책 불확실성이 소화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다만 Energy addition 환경에서 태양광은 필수적인 선택지이며 하반기 대규모 대기 수요가 수주로 전환될 가능성 높다고 판단

AI/플랫폼

알파벳(GOOG.US): 엔스로픽, 구글에 5년간 2,000억 달러 컴퓨팅 약정

- The Information 보도에 따르면 엔스로픽이 향후 5년간 구글 클라우드 및 TPU 칩 사용에 약 2,00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약정했으며, 본격 가동은 2027년부터 시작

마이크로소프트(MSFT.US): AI 데이터센터 폭증에 2030 시간단위 청정에너지 매칭 목표 후퇴 검토

- 마이크로소프트가 2030년까지 시간 단위로 100% 청정전력 매칭을 달성하겠다는 자체 목표를 지연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

애플(AAPL.US): R&D/매출 비율 10.3% 돌파

- 애플의 회계 2분기(3월 분기) R&D 지출이 매출의 10.3%(약 114억 달러)로 30년 만에 처음 두 자릿수를 돌파했으며, 이는 직전 분기 7.6%-전년 동기 9% 대비 가파른 상승. 분기 매출은 2021년 이후 최고치인 17% 증가했음에도 R&D는 그 두 배인 34% 급증해, 매출 성장보다 투자 강도가 훨씬 빠르게 가속화되는 국면

인텔(INTC.US): 애플, 인텔·삼성과 미국 내 칩 생산 협의

- 애플이 자사 디바이스용 메인 프로세서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인텔(파운드리 서비스 활용) 및 삼성전자(텍사스 신공장 실사 진행)와 초기 단계 논의를 진행 중

테슬라(TSLA.US): 테라팜, 1단계만 550억 달러·총 1,190억 달러로 확장 예정

- 테라팜 반도체 공장의 자본투자 규모가 1단계 550억 달러, 전체 빌드아웃 시 최대 1,1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공개 청문회 공고를 통해 처음 확인. 당초 머스크가 3월 발표 당시 언급한 200억 달러 대비 최소 6배 가까이 부풀어난 규모

오픈AI(비상장): 머스크 vs 올트만 재판

- 머스크가 올트만·브록만을 상대로 제기한 OpenAI 영리법인 전환 위법성 소송의 2주차 공판에서, OpenAI 사장 그레그 브록만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이틀간 증언을 마무리하며 머스크의 일방적 서사에 정면 반박

앤스로픽(비상장): 1분기 매출 80배 폭증으로 컴퓨팅 병목 노출

-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가 5월 6일 샌프란시스코 'Code with Claude'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1분기 매출 및 사용량이 연환산 기준 80배 증가했다고 공개. 회사가 내부적으로 가정했던 10배 성장 시나리오 대비 8배를 초과하는 폭증으로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too hard to handle) 미친 수준”이라고 토로하며 컴퓨팅 캐파 부족 사태의 근본 원인이 수요 폭증 자체였음을 인정함

데이터독

상장 국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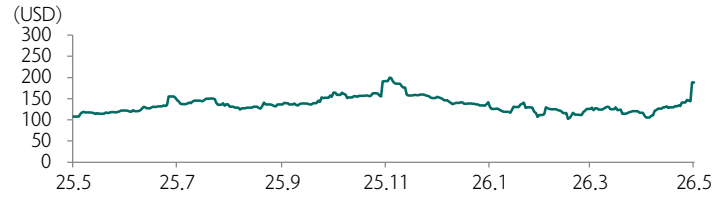
산업

소프트웨어

시가총액(십억달러)

67

최근 주가 추이



데이터독(DDOG.US): IT 모니터링 수요 급증 속에서 성장 가속화

- 1분기 주요 실적 지표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시현 & 보수적인 가이드언스 산정에도 2분기 매출 가이드언스가 컨센을 여유 있게 상회
- AI 도입은 IT 모니터링과 보안 수요 상승 환경. AI 모델사나 클라우드 사업자의 모니터링 자체 구축 등으로 경쟁 심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도 상존할 것으로 보이나 데이터독이 가진 통합 플랫폼의 강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
- 1)AI고객향 매출과 Non-AI 매출 모두 성장 모멘텀 강세 확인. Non-AI 매출은 20%대 중반 성장으로 전분기 23%에서 가속화. 전체 매출이 10억 달러를 상회, YoY 32% 성장하며 전분기 29%에서 가속
- 2)AI 코드 생성 툴 확산으로 애플리케이션 수와 운영 복잡성이 높아지면서 모니터링 수요 급증, 데이터독 플랫폼 전 계층에서 사용량 증가 가속화로 이어짐
- 3)AI 에이전트 도입 가속화가 사용자수 기반 매출 인식하는 일반 소프트웨어 기업에게는 과금체제 관련 혼동을 줄 수 있으나 사용량 기반 과금 모델인 데이터독 입장에서는 사용주체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량 증가에 따른 수혜 전망
- 4) AI 훈련 워크로드가 기존 소수 기업에서 다수 기업으로 확산되는 흐름은 새로운 시장 기회

1Q26 주요 실적 지표

- 1분기 매출 10.1억 달러(+32% yoy), 조정 EPS 0.60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각각 5%, 18% 상회
- 1분기 RPO 34.8억 달러로 51% 증가, 조정 OPM과 FCF 마진 각각 22%, 29% 기록
- 신규고객 ARR 계약규모, YoY 2배 이상 증가, 사상 최대치 달성. 전체 ARR 40억 달러 상회
- 4월까지 추이는 ARR 성장 가속세 지속 확인
- 1분기 NRR 120%대 초반으로 상승
- 플랫폼 기반 제품 채택 가속화되며 4개/6개/8개 이상 사용 고객수 비중 각각 56%/35%/20%로 상승(전년동기 51%/28%/13%)
- 2분기 매출 가이드언스는 10.7~10.8억 달러(+29~31% yoy) 제시, 컨센을 3% 상회, 조정 OPM 가이드언스는 21~22%
- 2분기 조정 EPS 가이드언스는 0.57~0.59 달러로 컨센을 5% 상회

클라우드플레어

상장 국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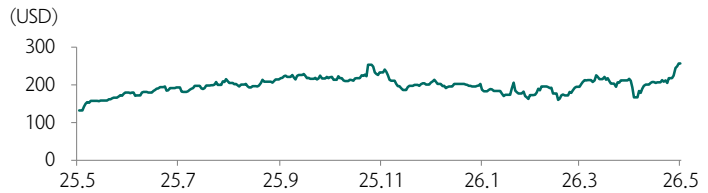
산업

소프트웨어

시가총액(십억달러)

90

최근 주가 추이



클라우드플레어(NET.US): 2분기 가이드언스 아쉬우나 AI 에이전트 트랙픽 수혜 확인

-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으나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 -18% 하락. 1)2분기 매출 가이드언스 시장 예상치 소폭 하회, 2) 예상 밖의 대규모 인력 감축 발표 관련 우려, 3) GPM 전년동기대비 -470bp 하락, 4)최근 저점 대비 50% 넘는 급등에 따른 기술적 과열 해소 등이 요인으로 작용.
- 경영진의 입장은 구조조정이 비용절감이 아닌 역할 재편의 문제이며 AI 도입으로 지원 인력의 역할 축소 때문, 2027년에 역할 변화를 반영하여 더 많은 인력 고용 예정.
- GPM 하락은 무료 트래픽의 유료 전환 가속화 때문. NET은 무료 사용자의 트래픽 네트워크 비용을 마케팅 비용으로 분류. 1분기에 무료 사용자들이 유료 개발자 플랫폼으로 전환되면서 GPM에 영향을 미쳤으나 P&L 전체로 보면 실질적으로 영향은 중립. GPM 보다 OPM이 더 적합한 경쟁력 지표이며, Rule of 40가 현재 46% 정도인데 2027년에는 50% 이상 달성 가시성 확보
- AI 모델사의 매니지드 에이전트 기능이 NET의 개발자 플랫폼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시장에서 우려 제기. 이에 대해 경영진은 AI 랩들이 NET의 인프라를 자사의 워크로드 실행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 강조. 경량, 고속에 강점이 있는 NET 개발자 프로그램 출시 후 대형 AI 스튜디오에서 높은 채택률 보임
- 1분기 실적은 에이전트 AI도입 가속화의 대표 수혜자라는 점을 확인. AI 에이전트 수혜가 개발자 플랫폼 가입자 수 증가로 드러나고 있음. 1분기에만 '워크스 플랫폼' 개발자 수가 100만 명 증가하며 작년 전체 증가 수인 150만 명에 육박.
-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에이전트 AI SW 플랫폼 대장주로서 지속적인 관심 필요

FY26 3분기 주요 지표

- 1분기 매출 6.40억 달러 (예상치 6.21억 달러), YoY +34%로 컨센서스 약 3% 상회. 조정 EPS 0.25달러 (예상치 0.23달러)로 7% 상회
- 연 10만 달러 이상 지출 대형 고객 4,416개사로 YoY +25%, 매출 기여도 72% (전년 동기 69%). 연 500만 달러 이상 초대형 고객은 YoY +50%, 1분기 한 분기에만 2025년 한 해 추가분과 동일한 수의 신규 추가
- 달러 기준 순매출유지율(DBNR) 118%로 QoQ -2%p, YoY +7%p
- RPO 25.43억 달러로 QoQ +2%, YoY +36%. 단기 RPO 비중 64%, YoY +34%
- 2분기 매출 가이드언스 6.64~6.65억 달러 (예상치 6.65억 달러), YoY +30%, 조정 EPS 가이드언스 0.27달러 (예상치 0.27달러)로 컨센서스 부합 수준

에이전틱 AI 우선 조직으로 전환

- 전사 인력 약 20%, 약 1,100명 감축을 발표. 모든 부서·지역에 걸친 감축. 영업·코드 작성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의 생산성 급증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던 다수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에 따라 감축을 단행
- 지난 3개월간 사내 AI 사용량 +600%, R&D 인력의 97%가 자체 워크스 플랫폼 기반 AI 코딩 도구 사용, 프로덕션 코드 기여물의 100%가 자율 AI 에이전트의 검토를 받음. 클라우드플레어 OS라는 자체 사내 에이전틱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이를 향후 외부 상품화할 가능성도 시사

에이전트AI 트래픽 수혜

- 에이전트AI가 네트워크/보안, 개발자 플랫폼 양쪽에서 동시에 수혜가 되고 있음. 월간 수천억 건의 에이전트 요청이 클라우드플레어 네트워크를 통과하고 있으며, 회사는 2027년 중 비인간(non-human) 트래픽이 인간 트래픽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 워크스 개발자 플랫폼 등록 개발자 수가 1분기 한 분기에만 100만명 증가해 분기 말 550만명 도달. 2025년 연간 신규 추가 개발자 수가 150만명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분기 한 번 만에 연간의 2/3를 채운 것. 워크스 매출 성장의 3/4 이상이 신규 고객에서 발생

팔란티어

상장 국가

미국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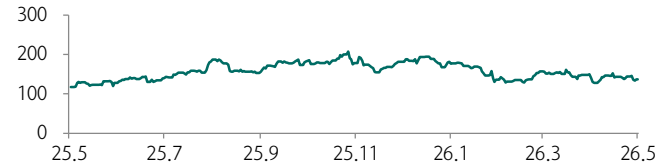
소프트웨어

시가총액(십억달러)

332

최근 주가 추이

(USD)



팔란티어(PLTR.US): 미국 정부향 수요 급증 & 커머셜 모멘텀 여전히 강세

- 1분기 주요 지표와 2분기 가이드언스가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시현
- 미국 정부향 매출이 6.9억 달러로 84% yoy 성장하며 전분기 66%에서 급등했으나 미국 커머셜 매출액이 6.0억 달러로 133% 증가, 시장 기대(전분기와 같이 137%)를 소폭 하회한 점이 실적 발표 후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1분기 특정 커머셜 고객이 정부향 프로그램으로 전환된 영향이 있으며, 이를 제외할 경우 미국 커머셜 매출 성장 143%. 미국 커머셜 수요 증가 둔화가 아니며 현재 상황은 공급 부족으로 국방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커머셜 자원을 일부 국방쪽으로 지원 증가
- 전체 매출 성장 85%로 전분기 70%에서 가속화하며 역대 최고 성장 기록, 조정 OPM 처음으로 60% 상회. 2분기 가이드언스 매출액 18.0억 달러(+79%)로 컨센 7% 상회, 영업이익 10.6억 달러로 컨센 9% 상회
- 2026년 연간 가이드언스는 매출액을 6.5% 올려 76.5억 달러로 상향. 기존 61% 성장 전망에서 71%로 조정. 미국 커머셜 매출은 '120% 이상 성장'으로 상향(기존 115%). 전체 매출 상향 조정 폭 대비 미국 커머셜 매출 상향 폭이 낮은 것은 정부향 수요 급증에 우선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통상적으로 보수적으로 제시하고 매분기 상향조정하는 전략 고려
- 엄청난 숫자에도 실적 발표 후 주가 반응은 1)향후 AI 모델사와의 경쟁 속에서 커머셜 수요 변화 가능성, 2)높은 밸류에이션 등이 투자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
- 그러나 1) 미국 커머셜 모멘텀 여전히 강세, 2) 미국 정부향 수요 급증은 미국 국방 예산 속에서 팔란티어 비중 상승을 시사, 3)AI 모델이 팔란티어 대체라기 보다는 AI 모델 적용으로 팔란티어 플랫폼의 차별화된 경쟁력(메타 데이터 그래핑 & 의사결정)을 높이고 있음에 주목
- 현 주가는 FY27 매출 컨센서스 기준 PSR 33배(FY2) 수준으로, 단기적으로 투자심리 약세 지속될 수 있으나, 미국 정부 및 기업향 AI 시장 내 팔란티어의 독보적인 경쟁 지위, 강력한 성장 & 수익성 상승세를 감안하면 최근 2년 평균 멀티플인 PSR 45배까지의 반등 여지 유효하다고 판단됨

AMD

상장 국가

미국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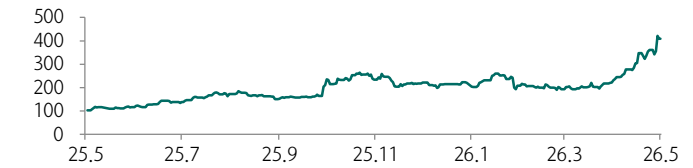
반도체

시가총액(십억달러)

685

최근 주가 추이

(USD)



AMD(AMD.US): 폭발적인 서버 CPU 성장 확인

- 인텔과 마찬가지로 AI로 인한 강한 CPU 수요를 확인. 2030년 CPU TAM을 기존 6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까지 상향함. 특히 Agentic AI에 따라 CPU가 GPU보다 많아질 수 있다고 코멘트하며 추가적 TAM 상향의 여지도 남겨둠. GPU도 이번 분기는 중국 매출이 빠지면서 QoQ로 소폭 감소했으나, 다음 분기부터는 다시 성장을 예상. 데이터센터용 CPU, GPU 모두 성장이 가속화 되는 국면을 확인하며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

주요 지표

- 1분기 매출 103억 달러 (예상치 98.9억 달러), YoY +38%. 조정 EPS 1.37달러 (예상치 1.28달러), YoY +43%로 시장 예상치 상회
- GAAP GPM 53%, 조정 GPM 55%. OPM 25%
- Data Center 매출 58억 달러, YoY +57%, QoQ +7%. Segment 영업이익 16억 달러, OPM 28%로 전년 25%에서 상승
- Client & Gaming 매출 36억 달러, YoY +23%. 이 중 Client 매출 29억 달러, YoY +26%, Gaming 매출 7.2억 달러, YoY +11%. Embedded 매출은 8.73억 달러, YoY +6%
- 2분기 매출 가이드스 109~115억 달러 (예상치 105.2억 달러). 중간값 기준 YoY +46%, QoQ +9% 성장

서버 CPU 수혜 확대

- 기존 Analyst Day에서는 향후 3~5년 서버 CPU 시장이 연평균 약 18% 성장한다고 봤으나, 이번에는 Agentic AI로 인해 연평균 35% 이상 성장, 2030년 1,200억 달러 이상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을 상향
- 시장 전망 상향의 주요 이유는 AI 채택 확산 시 추론이 늘고, 추론이 늘면 에이전트가 늘고, 에이전트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orchestration, data processing, data movement, parallel execution이 필요. 해당 업무들은 GPU가 아닌 CPU가 담당하는 영역. 그에따라 CPU:GPU 비율도 바뀌고 있음. 과거에는 CPU가 주로 host node 역할이라 1:4 또는 1:8 구조가 많았다면, 앞으로는 1:1에 가까워질 수 있고, 에이전트가 많아지면 CPU가 GPU보다 더 많아지는 구조도 가능
- 서버 CPU 매출은 4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YoY +50% 이상 성장. 2분기 서버 CPU 매출은 YoY +70% 이상 성장한다고 가이드스 제시. 서버 CPU 성장은 하반기와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성장은 ASP보다 Q 상승에 의한 것. 공급망이 타이트해 일부 가격 인상은 있지만, 성장의 핵심은 더 많은 CPU를 훨씬 많이 출하하는 것에서 기인함
- AI 인프라에서는 단일 CPU가 아니라 일반 서버용, head node용, Agentic AI orchestration용 CPU가 다르게 필요. 즉, ARM 진영 뿐 아니라 x86 진영의 동반 수요 확대를 기대

견조한 GPU 성장

- Data Center AI 매출은 YoY로 큰 폭의 두 자리수로(significant double-digit) 성장했으나, QoQ로는 중국 매출 감소 영향으로 소폭 감소. 하지만 2분기에는 Data Center AI와 Server 모두 QoQ 두 자리수 성장할 것으로 예상
- MI450 수요는 기존 계획을 초과하고 있으며, 추가 multi-GW 기회도 논의 중. AMD는 이를 바탕으로 2027년 Data Center AI 연간 매출이 수백 억 달러(tens of billions of dollars)에 도달할 수 있고, 장기 성장을 목표인 80%+도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MI450의 GPM은 전사 평균보다 낮음. 단기적으로는 매출 확대가 우선이고, 시간이 지나며 ASP와 규모 효과로 마진 개선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

샌디스크

상장 국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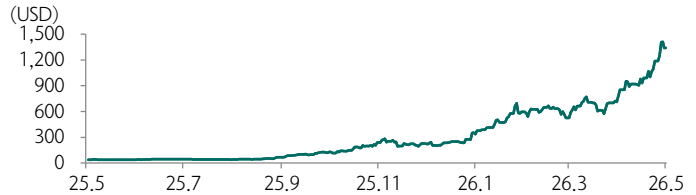
산업

반도체

시가총액(십억달러)

198

최근 주가 추이



샌디스크(SNDK.US): 장기 공급 계약 5개

- 5개 고객에게 RPO 420억 달러를 인식. Bit 기준 장기 공급 계약 물량이 FY27 물량의 1/3 이상을 커버하고 추가 계약으로 절반 이상 커버 될 것으로 예상. 기존 메모리 사업은 실적 피크에 FWD P/E 5배 내외를 받아왔음. 하지만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가격 하방이 막힌다면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기대해볼 수 있음. 현재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12M FWD P/E 9배 수준이나, 시장 NAND ASP 상승 분을 감안할 시 실제 멀티플은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

주요 지표

- 3분기 매출 59.5억 달러 (예상치 47.0억 달러), QoQ +97%, YoY +251%. 조정 EPS 23.41달러 (예상치 14.54달러)로 매출·EPS 모두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
- 조정 GPM 78.4%로 전분기 51.1%에서 급등. 기존 가이던스 65~67%도 크게 상회. 조정 OPM은 70.9%로 전분기 37.5%에서 상승
- Data Center 매출 14.67억 달러, QoQ +233%. Edge 매출 36.63억 달러, QoQ +118%. Consumer 매출 8.20억 달러, QoQ -10%. 데이터센터는 전체 매출의 약 25%까지 올라왔고, 앞으로도 mix 상승 가능성이 큼
- 4분기 매출 가이던스 77.5~82.5억 달러 (예상치 64.9억 달러). 조정 EPS 가이던스 30~33달러 (예상치 22.70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 조정 GPM 가이던스는 79~81%로 제시
- 순현금 목표를 달성하며 60억 달러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발표

장기 공급 계약 체결

- 고객과 5개의 다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 3분기 중 3개, 4분기 들어 추가 2개를 체결했으며, 여러 고객과 추가 협상 중
- 3개 계약 기준 최소 계약 매출, 즉 RPO가 약 420억 달러. 해당 계약에는 4분기 들어 추가한 2개 계약은 포함되지 않음
- 5개 계약에는 110억 달러 이상의 금융보증이 포함됨. 이 보증에는 선금금과 제3자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금융상품이 포함되어 있고, 고객이 계약상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샌디스크가 보상을 받는 구조. 3분기 선금금 4억 달러 수취 완료
- 계약 기간은 고객별로 다르며 최장 5년. 가격 구조는 fixed와 variable이 섞여 있음. 단기 구간은 fixed 성격이 강하고, 장기 구간으로 갈수록 variable 요소가 커짐
- 5개 장기 공급 계약은 FY27 bit 기준 1/3 이상을 이미 커버. 회사는 추가 계약 체결 시 이 비중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50% 이상도 가능하다고 언급

AI 산업에서 NAND의 높아진 지위 재확인

- AI 인프라에서 NAND의 역할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음. 과거 NAND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였지만, 이제는 추론, 복잡한 판단, 스스로 일을 수행하는 시스템에서 빠른 응답과 대화·작업 흐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장치로 올라오고 있음
- KV cache, RAG, 긴 문맥 처리, 작업 중간에 생기는 데이터, 외부 데이터셋 저장이 모두 고성능·저지연 플래시 수요를 키우는 요인. 모델 자체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추론 과정에서 생기는 대화 흐름과 중간 결과물까지 빠르게 저장하고 다시 불러와야 하기 때문
- NAND 플래시는 대규모 실시간 추론에서 저장 용량, 처리 속도, 비용·전력 효율을 동시에 맞출 수 있는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이 되었음. 비싼 고속 메모리(HBM/DRAM)만으로는 비용과 용량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SSD/NAND가 AI용 메모리 구조에서 아래쪽 확장 저장 계층으로 들어가야만 함
- High-bandwidth flash(HBF)는 기존 기업용 SSD를 단순히 대체하는 제품이라기보다, 추론에 더 높은 저장 밀도를 제공하는 새로운 계층에 가까움. 고대역폭 플래시 칩은 올해 말, 제어칩을 포함한 완제품 시스템은 내년 초~중반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루멘텀

상장 국가

미국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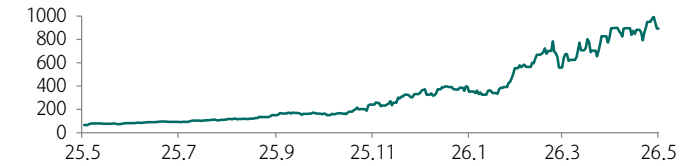
광 통신

시가총액(십억달러)

73

최근 주가 추이

(USD)



루멘텀(LITE.US): 스케일 어크로스 시장 추가

- 3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 스케일 어크로스 시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 아이템이 추가 되었고, 원래는 전사 마진에 역풍이었던 트랜시버가 강한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이 가속화 되고 있으나 해당 아이템들은 동사 투자에 있어서 핵심적 포인트가 되기는 어려움
- 동사의 회식 기준 시가 총액은 이미 1000억 달러(회식 주식 수 1.02억 주 기준)를 넘어선 수준이고, 회식 시총 기준 FY27(27년 6월 결산) FWD P/E는 66배 수준. 동사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이유는 26년 하반기부터 열릴 CPO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 하지만 이번 분기 실적발표에서 CPO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기대 요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주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FY26 3분기 주요 지표

- 매출 8.08억 달러 (예상치 8.10억 달러), YoY +90%. 매출은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으나, 조정 EPS 2.37달러 (예상치 2.27달러)로 이익은 예상 상회
- 조정 GPM 47.9%로 QoQ +540bp, YoY +1,270bp 개선. 조정 OPM은 32.2%로 QoQ +700bp, YoY +2,140bp 상승
- 4분기 매출 가이드스 9.60~10.10억 달러 (예상치 9.17억 달러). 조정 EPS 2.85~3.05달러 (예상치 2.69달러)로 예상치 상회

스케일 어크로스 병목 확대

- 스케일 어크로스는 여러 데이터센터 건물을 광 네트워크로 묶어 하나의 큰 컴퓨팅 덩어리처럼 쓰는 구조. 전력과 공간 한계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개별 데이터센터 건물 안에서만 스케일 아웃 하는 데 한계가 생기고, 서로 떨어진 건물/캠퍼스를 광으로 연결해야 하는 수요가 커지는 중
- 루멘텀은 스케일 어크로스 시장에 pump laser, narrow linewidth laser assembly, WSS를 핵심 제품으로 공급 중. Pump laser는 장거리 광신호가 약해지지 않게 중간에서 빛을 증폭해주는 역할이고, narrow linewidth laser는 1.6T급 고속 전송에 필요한 매우 정밀한 빛을 만들어주는 부품. WSS는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지 않고 빛의 경로를 바꿔주는 광학 교통정리 장치. Narrow linewidth laser assembly 출하는 9개 분기 연속 증가했고 YoY 120% 이상 성장. Pump laser 출하도 YoY 80% 증가
- 현재 스케일 어크로스 제품이 기존에 주목 받았던 EML보다 수급이 더 타이트할 수 있음. 특히 pump laser와 narrow linewidth laser는 제약이 심하고, pump laser 쪽 공급부족은 회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갑자기 커진 것으로 보임
- 스케일 어크로스향 제품 병목 심화에 따라 해당 제품들이 마진 개선에 주요하게 기여했음

트랜시버 성장 가속화

- Systems 매출 2.75억 달러 중 트랜시버가 대부분의 성장을 견인했고, 전분기 대비 40% 이상 증가. 태국 생산 footprint 확대를 활용해 출하를 늘림. 다음 분기부터 1.6T 트랜시버 출하가 본격화될 예정
- 트랜시버 마진은 아직 peer 대비 낮은 편. 다만 1.6T는 800G 대비 구조적으로 마진이 더 좋고, 자체 CW laser를 모듈에 넣기 시작하면서 수익성 개선 여지가 커짐
- 트랜시버 수요가 많았지만 부품 공급 제약 때문에 충분히 출하하지 못함. 전기 부품, laser diode, 외부 CW laser 조달이 병목. 그에따라 CW laser 자체 생산을 늘려, 다음 분기 기준 약 20%의 모듈에 자체 CW laser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

OCS 순항중

- OCS에서 이미 다년 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매계약을 확보. 3개 고객과 계속 협의 중이고, 그중 2개 고객이 대부분을 차지. 추가 될 수 있는 고객의 규모도 2027년 수주잔고와 비교할 때 의미 있는 수준
- 계획 대로 하반기에 약 4억 달러를 출하할 예정이며, 2027년에 출하가 본격화될 예정
- 중국 업체들도 OCS Box를 공개했으나, 향후 1년 내 의미 있는 규모의 생산이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퍼스트솔라

상장 국가

미국/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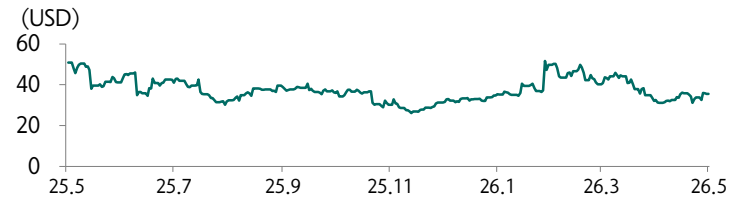
산업

정보기술

시가총액(십억달러)

23.4

최근 주가 추이



퍼스트솔라(FSLR.US): 정책 대기 물량 해소가 기대되는 하반기

1Q26 Re: 컨센스 상회

- 매출액 10.4억 달러(YoY +23.6%)로 판매량이 31% 증가하며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으나 인도 내수 비중이 증가하며 일부 상쇄
- AMPC 공제 혜택 대상 물량이 증가하고 물류비가 전년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며 GPM 47%(+6pp)
- 1분기 수주 1.9GW 중 1.4GW가 미국 유틸리티용으로 체결되었고 ASP는 와트당 0.35달러
- USITC는 3월 25일 동사가 제기한 TOPCon 모듈 특허 침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으며 11개월 내 예비판정, 15개월 내 최종판정

수직계열화와 CuRe는 인도시장 확대 요인

- 인도 역시 유틸리티 수요가 견조해 내수로 약 1GW를 와트당 0.2달러에 판매
- 2028년까지 전력망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웨이퍼를 인도 현지에서 제조해야한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FSLR의 수직계열화 장점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 2027년 초부터는 인도에서 CuRe를 출시할 예정으로 효율성을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음. 인도의 산업 보호책인 ALMM(모델 및 제조사 승인 리스트) 기준에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에도 부합
- 우주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는 2027년 파일럿 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며 현재는 구조 방식(단일 접합, 탠덤)도 정해지지 않은 단계. 동사의 주장대로 TOPCon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면 테슬라와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

활발한 태양광 프로젝트 M&A

- 2분기 마진은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이며 판매량이 증가하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최근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퍼스트솔라는 약 700MW의 옵션 물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
- FSLR의 대형 고객들 역시 관세 판결 전까지는 와트당 0.33달러 이상으로는 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는 상황
- 주가 역시 정책 불확실성이 소화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다만 Energy addition 환경에서 태양광은 필수적인 선택지이며 하반기 대규모 대기 수요가 수주로 전환될 가능성 높다고 판단

AI/플랫폼

알파벳(GOOG.US): 앤스로픽, 구글에 5년간 2,000억 달러 컴퓨팅 약정

- The Information 보도에 따르면 앤스로픽이 향후 5년간 구글 클라우드 및 TPU 칩 사용에 약 2,00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약정했으며, 본격 가동은 2027년부터 시작
- 다만, 양사가 공식적으로 해당 계약에 대해서 확인한 단계는 아님. 만약 해당 계약이 사실이라면, 이번 계약 규모는 구글 클라우드 RPO의 40%를 상회하는 수준

마이크로소프트(MSFT.US): AI 데이터센터 폭증에 2030 시간단위 청정에너지 매칭 목표 후퇴 검토

- 마이크로소프트가 2030년까지 시간 단위로 100% 청정전력 매칭을 달성하겠다는 자체 목표를 지연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
-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공식 코멘트 대신 “연간(annual) 매칭 목표는 유지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 중”이라는 입장만 밝힘. 시간 단위 매칭은 전력망 공급이 실시간으로 균형을 이뤄야 하는 특성을 반영해 사용량 패턴과 재생에너지 발전 패턴을 정밀하게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단순히 한낮 태양광을 초과 구매해 회계상 상쇄(offset)할 수 있는 연간 매칭보다 훨씬 강도 높은 기준이며 진정한 넷제로에 가까운 체제

애플(AAPL.US): R&D/매출 비율 10.3% 돌파

- 애플의 회계 2분기(3월 분기) R&D 지출이 매출의 10.3%(약 114억 달러)로 30년 만에 처음 두 자릿수를 돌파했으며, 이는 직전 분기 7.6%-전년 동기 9% 대비 가파른 상승. 분기 매출은 2021년 이후 최고치인 17% 증가했음에도 R&D는 그 두 배인 34% 급증해, 매출 성장보다 투자 강도가 훨씬 빠르게 가속화되는 국면
- 이번 추세는 애플이 신규 AI 제품 출시에 대한 절박감(sense of urgency)을 드러내는 신호로 해석 됨

인텔(INTC.US): 애플, 인텔·삼성과 미국 내 칩 생산 협의

- 애플이 자사 디바이스용 메인 프로세서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인텔(파운드리 서비스 활용) 및 삼성전자(텍사스 신공장 실사 진행)와 초기 단계 논의를 진행 중
- 다만 양측 모두 초기 단계이며 애플은 비-TSMC 공정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명시되어 있음

테슬라(TSLA.US): 테라팜, 1단계만 550억 달러·총 1,190억 달러로 확장 예정

- 테라팜 반도체 공장의 자본투자 규모가 1단계 550억 달러, 전체 빌드아웃 시 최대 1,1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공개 청문회 공고를 통해 처음 확인. 당초 머스크가 3월 발표 당시 언급한 200억 달러 대비 최소 6배 가까이 부풀어난 규모
- 인텔은 4월 테라팜의 첫 외부 파운드리 고객으로 합류해 차세대 14A 공정으로 테슬라 차량 및 옵티머스 휴머노이드용 칩을 양산할 예정

오픈AI(비상장): 머스크 vs 올트만 재판

- 머스크가 올트만·브록만을 상대로 제기한 OpenAI 영리법인 전환 위법성 소송의 2주차 공판에서, OpenAI 사장 그레그 브록만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이틀간 증언을 마무리하며 머스크의 일방적 서사에 정면 반박
- 핵심 분기점인 2017년 8월 회의에서 머스크가 OpenAI에 대한 ‘절대적 단독 통제권(unequivocal control)’을 요구했고, 브록만·수츠케버는 머스크가 CEO·과반 지분을 갖는 안까지는 수용 가능했으나 AGI에 대한 일방적 통제권은 거부했으며, 거절 통보 직후 머스크가 회의실 벽에 걸린 테슬라 Model 3 그림을 떼어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일화가 공개됨
- 머스크 측 변호인은 브록만의 개인 일기에 등장한 “재정적으로 10억 달러까지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2017년 메모를 집중 부각해 미션보다 사익을 우선시했다는 프레임 제시. 브록만은 자신의 OpenAI 영리법인 지분 가치가 약 300억 달러에 달함을 공식 확인하면서도 “OpenAI 재단이 보유한 1,500억 달러 상당의 영리법인 지분이 머스크가 떠난 이후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반박. OpenAI는 여전히 비영리법인이 통제하며 영리 자회사는 공익기업(public-benefit corporation) 형태임을 강조

앤스로픽(비상장): 1분기 매출 80배 폭증으로 컴퓨팅 병목 노출

-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가 5월 6일 샌프란시스코 'Code with Claude'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1분기 매출 및 사용량이 연산산 기준 80배 증가했다고 공개. 회사가 내부적으로 가정했던 10배 성장 시나리오 대비 8배를 초과하는 폭증으로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too hard to handle) 미친 수준”이라고 토로하며 컴퓨팅 캐파 부족 사태의 근본 원인이 수요 폭증 자체였음을 인정함
- 앤스로픽이 SpaceX의 멤피스 소재 Colossus 1 데이터센터 전체 캐파를 임대하며 1개월 내 300MW 이상의 신규 캐파와 22만 개 이상의 엔비디아 GPU에 접근 가능해짐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5월 8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2026년 5월 8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